후두 편평세포암에서 암억제유전자 단백 및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발현의 임상적 의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정광유*· 최종욱

후두 편평세포암은 종양세포의 생물학적 특성과 발생부위별 미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적 병기만으로 예후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종양세포의 유전정보에 의한 증식능이 예후와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EGFR, p53 단백 및 pRB의 표현양상을 후두 편평세포암 40례의 임상적 특성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 1. p53 단백의 양성 표현율은 임상적 병기, 원발병소의 병기, 경부 림프전이절의 병기, 병리조직학적 분화도, 재발이나 원격전이 혹은 이차암이 있었던 경우와 연관성이 높았다.
- 2. pRB의 음성 표현율은 침습성이 강한 성문상부, 임상적 병기, 원발병소의 병기, 병리 조직학적 분화도, 재발이나 원격전이 혹은 이차암, 치료에 실패한 경우와 연관성이 높았다.
 - 3. 3년생존율은 p53의 양성표현율과 관계가 있었다.
 - 4. EGFR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p53 단백과 pRB의 암억제유전자 단백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한 표현양상은 후두 편평세포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양측 인자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후두 편평세포암의 악성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후인자로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Expression of Oncosuppressor Gene Protein and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in Squamous Cell Carcinomas of Larynx

Kwang Yoon Jung, M.D., Jong Ouck Choi,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The clinical staging system for laryngeal cancers is not sufficient for prognosticator due to different biologic characteristics and their microenvironment according to primary sites. For determining the prognosticators, the authors perform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o EGFR, p53 protein, and pRB in 40 cases of surgically treated squamous cell carcinomas of larynx in our institute during the past 5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 1. The positive expression rate of p53 protein and negative expression rate of pRB showed correlations with clinical parameters.
- 2. The three-year survival rate for p53 protein positive cases was worse than the p53 protein negative cases.
- 3. Expression rate of EGFR was not correlated with the clinical parameters.

As a conclusion, expression rates of p53 protein and pRB not only reflect well the biologic behavior of laryngeal cancer, but correlate closely with the tumor factors. Therefore they may be useful as the prognosticator to predict the malignant potency of laryngeal squamous cell carcinomas.